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겸손한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여 땅으로 내려오신
하느님을 맞이하는 은총의 성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은총 충만한 새해 맞으시길 기도합니다.”

“구세주 탄생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빌며 2023년 새해에도
늘 주님안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둠을 뚫고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믿음과 희망,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나이다!”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수영 수경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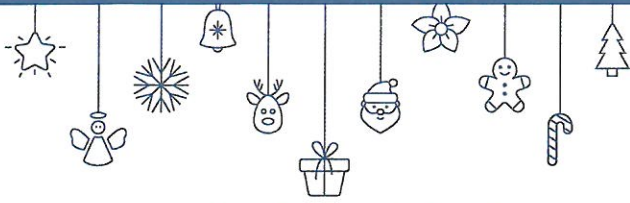
유경춘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손희송

구요비 욕주교

구요비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입당송 | 시편 2,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답송 | 시편 96(95),1-2,7,24-3,11-12,13(◎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환호송 |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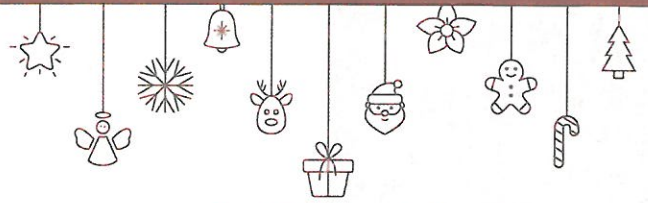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 음 |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영성체송 |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입당송 |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 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 시편 98(97),1,2-3,7,14,34-4,5-6(◎ 3,4 참조)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 히브 1,1-6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 음 | 요한 1,1-18(또는 1,1-5,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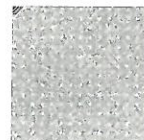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빼앗긴 성탄 찾아오기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성탄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것이 아니기에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빵집이나 레스토랑이라고 응답하는 이들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앞서 열거한 곳들은 성탄이 되면 가장 분주해집니다. 백화점의 야외 조명은 일 년 중 성탄을 전후로 가장 화려해집니다. 쇼핑몰과 호텔 등도 크리스마스 특가, 크리스마스 패키지 등의 상품을 내놓으며 성탄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업종입니다. 빵집은 한가득 케이크를 만들어 쌓아놓고 손님들을 기다리며,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한 손님들로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탄은 가족, 친구, 연인과 즐겁게 보내는 날일까요? 파티와 잔치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성탄을 잘 보낸 것일까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은 물론 지금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낭만적이지도 않았습니 다. 성탄을 기억하려 꾸미는 구유는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깨끗한 지푸라기가 놓여있으며 귀여운 동물들이 평화롭게 주변을 감싸는 모습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깨끗한 물 한 바가지 얻기 쉽지 않은 곳,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시큼하게 코를 찌르는 곳, 낯선 불청객을 마주한 동물들의 위협

적인 움직임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인생 막장 같은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문틈을 뚫고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맨살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 처참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강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탄생 스토리를 비참하다 말하면서도 숨기지 않고 가장 위대한 탄생, 거룩한 신비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마구간은 어디일지 묵상해 봅니다. 큰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빗물이 들이치는 반지하, 빵 만드는 기계 앞에서 밤새워 일하면서도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청년 노동자의 공장, 도심에서 일어난 황망한 참사에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집, 그렇게 화려한 조명 뒤, 잊혀진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요한 1,10)했다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이유,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은 아닐는지요?



목5동성당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어서 오세요, 아기 예수님! 경배와 찬미를 받으소서. 구약 백성들은 불평이 많고 자주 죄를 짓습니다. 때마다 예언자가 나타나 회개하라고 일깨우지만 다시 죄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와 구약 백성은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 하느님은 사람이 되시어 오늘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며 병고를 낫게 하시고 위로와 기쁨을 주시며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립니다.

홍덕희 아네스 | 가톨릭사진가회





하느님께 받은 성탄 선물

올해도 본당 앞에 꾸며진 성탄 구유를 바라봤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추운 겨울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 그 큰 사랑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당으로 들어가 묵상을 하는 중에 몇 해 전 서울가톨릭연극협회에서 공연했던 <4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듯이 동방박사가 원래는 4명이었다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4번째 박사는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해주느라 갖고 가던 보물의 일부를 팔고, 또 가다가 헐벗은 사람을 만나 남은 보물 중 일부를 팔아 옷을 사주고, 다시금 가던 중 이번에는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주는 비용을 마련하느라 남은 보물을 모두 팔았습니다. 4번째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 베들레헴에 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애절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4번째 동방박사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내가 강도당했을 때 함께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함께 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했습니다.” 연극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 역시 깊이 감동하여 오랫동안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극을 본 후에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무료 급식소에 가서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고, 자선에도 인식했습니다. 조금만 경제적으로 힘들면 시늉만 내던 후원금 자동이체도 취소하면서 나 아니어도 후원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성당 교무금을 건너뛰는 일은 다반사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 헌금을 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면서 호기롭게 계산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기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를 숙

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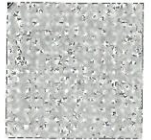
“주님,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주셨지만, 저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잊고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올해도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어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거처를 허락하시어 겨울에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주님께 받은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주님, 이 죄 많은 실베스테르에게 회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낮은 곳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용기를 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성당을 나와 다시 추운 겨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주님께서 주시는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용기를 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이충렬 실베스테르 | 전기 작가





대륙별단계를 위한 작업문서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이사 54,2)

(DCS, document for continental state)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교구단계를 거쳐 대륙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선 시노드 교구단계를 통하여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초대에 응답한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그 후, 주교단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을 식별하여 ‘교구별 시노드 종합문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주교회의를 통해 한 차례 더 종합되어,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에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노드 사무처는 전 세계 주교회의와 동방교회, 남·녀수도회, 교황청 부서들 및 교회 단체들과 온라인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대륙별단계를 위한 작업문서 「장막을 넓게 쳐라」(이하 ‘대륙별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륙별문서는 이전 단계까지의 시노드 여정을 통해 얻은 시노달리타스의 결실과 새로운 전망은 물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하느님 백성이 시노드 여정을 통해 서로에게 경청하면서 서로 간의 공통된 품위를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가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며 “너의 천막 터를 넓혀라.”(이사 54,2)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륙별문서는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소리를 들은 체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느님 백성에게서 무엇을 경청했는지 솔직하고 자유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이 나눈 바가 무엇인지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번 대륙별문서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시노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대륙별문서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시노드 여정 안에서 이루어진 경청이 교회적인 환대가 되었고, ② 선교 사명을 위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서 함께 친교를 이루고, ③ 하느님 백성 모두가 시노달리타스 교회에 함께 참여하여 공동 사명을 수행하며, ④ 이를 위해 시노달리타스적인 교회의 구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⑤ 시노달리타스적인 삶과 전례 거행의 중요성 등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제출된 의견으로 ‘교회의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과 평신도의 참여를 증진하는 사목평의회’에 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진행되는 대륙별단계는 대륙별문서를 문화적으로 식별하는 시노드 여정입니다. 현재 대륙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를 검토하고 식별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에서는 여성과 평신도가 시노달리타스 교회의 공동사명과 공동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회 직무에 대한 논의와 시노달리타스 양성 교육에 관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의 참여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교회의 시노드 여정에 함께하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륙별단계를 위한 작업문서는
서울대교구 시노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 2,12)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빛으로 오시기를 고대해 왔던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북녘 동포들과 전쟁의 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세상 온 누리에 주님 성탄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천여 년 전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고을, 산골 마을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진 아기 예수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열기설기 엮어진 마구간 지붕 사이로 밤하늘의 별들이 들어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맑은 눈동자가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발밑만 보지 말고, 가끔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네 삶이 고달프고 팍팍하여 그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품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극과 극으로 달려가며,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배척하는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루카 2,12)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음을 사회 여러 분야에서 보게 됩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온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시공의 제약을 넘어 통교를 가능케 하는 고마운 기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내면까지 이어주는 인격적인 교류로 깊어지기보다는, 자기주장 또는 자기과시의 무대가 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조장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의 기술 문명이 외적이고 피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영향 때문인지 현대사회는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높게 보는 법을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와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발밑만 바라볼 때, 혹은 앞만 바라보고 달릴 때 옆 사람은 경쟁자로 보일 뿐이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할 때, 서로는 길동무가 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만나게 됨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배타와 배척, 대립과 대치를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눈을 들어 저 멀리, 저 높이 바라볼 수 있을 때, 서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이고 이웃임을 알게 됩니다. 피상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겨 밀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와 더 높은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이웃이고 함께 나아가는 길동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류 문화가 여러 면에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어 자랑스롭지만,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증거해야 할 궁극의 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이 참된 평화를 건설하여 전쟁으로 갈라지고, 패권으로 갈라지고 있는 세계에 평화의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그런 '새롭고도 선도적인 한류'입니다. 참된 평화는 그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고 포용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눈을 들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봅시다. 눈앞의 가치, 피상적인 가치를 넘어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성탄의 기쁜 은총이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온 겨레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까미유 생상스(1835~1921)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생상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Oratorio de Noël)>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성탄대축일의 음악은 매우 특별하게 여겨지는 만큼 음악 선택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되지만, 제목이 가리키는 바,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바흐의 곡을 떠올리게 되나, 그와는 또 다르게 다정한 선율로 다가와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작품이 있으니, <동물의 사육제>로 잘 알려진 프랑스 작곡가 까미유 생상스(Camille Saint-Saëns, 1835~1921)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Oratorio de Noël) 작품번호(op.) 12>입니다.

생상스는 어린 시절 피아노 신동이었고, 작품도 클래식 음악의 전 장르에 빠짐없이 두루 있을 정도로 풍부해서 '프랑스의 모차르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피아노, 오르간, 작곡 등 음악가로서만이 아니라, 철학, 천문학, 고고학, 수학 분야의 학자였고, 유려하고 명쾌한 필체의 문필가였으며, 프랑스 고전, 라틴어에도 능통했던 다방면의 천재였다는 점입니다. 그런 생상스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것은 스물 세 살인 1858년, 성 마들렌 교회(La Madeleine)의 오르간 연주자로 취임하고 나서였습니다. 생상스가 얼마나 뛰어난 오르가니스트였는지는, 이곳에서 그의 오르간 연주를 본 리스트가 보낸 최고의 찬사와 특이하게 오르간이 관현악과 함께 편성된 그의 교향곡 3번 <오르간>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상스의 오르간은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활약하며 이 곡에 개성을 더하죠.

생상스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다섯 명의 독창자(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와 합창단, 현악 오케스트라, 오르간, 하프의 비교적 간소한 구성입니다. 흔히 종교적 오라토리오에서 느낄 법한 장엄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다정하게

다가오죠. 소박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이런 음악적 접근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 시간도 35분~40분 정도로, 2시간 반이 넘는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와 비교하면 아주 가쁜한 길이죠. 가사는 라틴어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루카 복음서 2장 8절~14절 말씀을 시작으로, 성탄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이사야서, 시편 등에서 인용했습니다. 총 열 곡으로 구성됐는데, 'J. S. 바흐 스타일'이라고 명기된 첫 곡 '전주곡(prelude)'은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처음 전해 듣는 풍경을 묘사한 듯, 목가적인 분위기입니다. 마치 이제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되려는 연극의 서막처럼 느껴지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아홉 곡은 독창, 중창, 합창 등 여러 형태로, 곡에 따라 프랑스적인 우아함, 소박한 민요풍, 또는 옛 성가풍으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바로크 스타일의 음악을 만나는 가 하면 한편으로는 고전주의적 경향을, 또 낭만파 음악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상스가 바흐와 헨델에게 영향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했으며, 자신은 낭만주의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었기에 당연한 결과겠지요. 또 생상스의 음악적 성향이 20세기 초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성보다는 전통에 기반한 보수성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을 맞아 사랑스런 생상스 음악을 들으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안데르스 에비(지휘) / 로열 오페라극장 관현악단
& 미카엘리 실내합창단, 여러 독창자

서울대교구 묘원 설 성묘 안내

1)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설 성묘 안내

미사: 2023년 1월 15일(주일) 10시 /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묘관리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미리 전화 예약(02)727-2225 후 송금하셔야 자리 배정이 가능합니다.(성묘객 중 자가용 이용자 명동대성당 주차 불가)

오전 9시	명동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교구청 앞)
오전 10시	미사 예정	용인묘원 경당(김수환 추기경 기념 경당) 명동 출발 차량 도착 시간에 따라 변동 가능
오후 2시	용인 출발	10분 전 승차 요망

승차권 예매: 12월 19일(월)부터 선착순 자리 배정(1매 1만 5천 원- 조기 마감 가능) / 문의: 02)727-2225 장묘관리팀
계좌: 우리은행 1005-604-153436 천주교용인추모공원
마스크 미착용 시 차량 탑승 및 경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2) 천주교 비봉추모관 설 성묘 안내

미사: 2023년 1월 15일(주일) 오전 11시, 비봉추모관 내 1층 미사 관련 문의: 031)355-0191 비봉추모관 관리사무소
명동 및 도림동성당에서 출발하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미사 참례, 봉안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1월 1일(주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며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7년 12월 27일 정치윤 이나시오 신부(59세)
- 2011년 12월 26일 이계광 세례자 요한 신부(90세)
- 2022년 1월 1일 송광섭 베드로 신부(85세)

12월 30일(금)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30일~2023년 1월 5일)'이 시작됩니다

제22회 가정 성화 주간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주보' 필진 안내

표지 사진	유리화 설명: 박정석(루크글라스)
생명의 말씀(첫째주)	정순택 대주교 · 손희송 주교 · 구요비 주교
생명의 말씀(둘째주)	방종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생명의 말씀(셋째주)	허석훈 신부(한강성당 주임)
생명의 말씀(넷째주)	하성용 신부(사회사목국 부국장)
생명의 말씀(다섯째주)	최우주 신부(대신학교)
생명의 말씀	특별 주일 · 기도의 날: 해당 사목 담당 신부
사랑의 손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신학	최현순(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성경	김덕재 신부(사목국 성서못자리 담당)
과학칼럼	조동원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환경칼럼	환경 활동가들
영화칼럼	구본석 신부(행동동성당 보좌)
전례미술	황 에스텔 수녀(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도서칼럼	김우선 신부(서강대학교 교수)
음악칼럼	최호영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영성심리	민범식 신부(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홍보국장)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주보'를 통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필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주보는 [홈페이지 cc.catholic.or.kr]와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교구청알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때, 곳: 12월29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문의: 02)2068-7066

발달장애인 첫영성체를 위한 봉사자 교육

때, 곳: 2023년 1월14일(토)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홈페이지(www.cafema.or.kr) 참조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2023년 1월5일(목) 오후 2시~3시, 가톨릭 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국)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벽 분당 갖기 미사)

때, 곳: 1350차 미사 12월2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계림, 회령, 나진옹기 본당
미사 후에 한반도 평화와 북녘분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서울평단협 탄소중립 실천 아카데미

때, 곳: 2023년 1월11일 · 18일 · 25일 매주(수) 19시~20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접수: 선착순 100명 / 무료수강: <https://bit.ly/3UupKE5>
문의: 02)777-2013(www.clas.or.kr)

1강	생태영성의 실천 과제로서 탄소중립	이재돈 신부
2강	탄소중립의 의미와 정책 및 실천	홍시찬 연구원
3강	탄소중립교회 실천과 과제	양기석 신부

26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2023년 3월3일~11일(8박9일)
주관: 성서못자리 / 지도: 이주형 신부
문의: 010-6734-0190 심 소화데레사

2023년 상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가톨릭교회 인준의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2023년 1월9일(월)~27일(금) / 2023년 3월 개강
대상: 교회음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가톨릭 교회 인준의 교회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자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2023년 명동대성당 하반기 혼인 예약 안내

7월~12월: 2023년 1월13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홀
추첨은 한 커플당 한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추첨, 양도목적 등 위반 적발 시 혼인예약이 불가합니다 / 문의: 02)774-1784

2) 혼인 가능 장소, 요일 및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도리아 채플	금요일	17시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3) 예약 시 필수 준비사항: ① 교적사본 1부(신랑 ·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제7회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정기전 (세인트그램): 전관
전시일정: 12월28일(수)~2023년 1월2일(월)

신임사목위원회교육(온라인)

대상: 본당 신임사목위원 / 회비: 1만원(1월8일 마감)
때: 2023년 1월16일(월)~2월26일(일)
교육: 에드워드 온라인 교육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http://songsin.catholic.ac.kr>)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임사동 등)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자 각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2023년 1월 8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사회복지사	주 40시간
넌너 요양보호사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인준단체 알림

모임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번 기도회

때: 12월26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2023년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때, 곳: 2023년 1월6일(금)~8일(일), 살레시오회 관구관(서울) /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 남성
 회비: 3만원 / 문의: 010-2042-8353 심재현 신부

노틀담 청년 기도모임(그해, 19~45)

대상: 19세~45세 남녀 청년 선착순 15명
 때, 곳: 2023년 1월14일(토) 17시~19시30분, 노틀담 수녀원(계산동) / 문의: 010-3930-6730 노틀담 수녀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해설강의, 묵상, 미사
 지도: 정 바오로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성가기도: 고영민(찬양선교사) / 성경직해 피정비: 1만원
 때, 곳: 2023년 1월14일(토) 14시~18시, 구산성지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2023년 1월6일~9일·1월27일~30일·2월3일~6일·2월24일~27일·3월10일~1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눈꽃산행: 1월6일~8일, 1월27일~29일, 2월4일~6일, 2월12일~14일, 2월18일~21일, 2월24일~26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자연 피정

2023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때, 곳: 2023년 1월7일(토) 15시~18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대학원 2층 대강당(서울 성모병원)
 내용: 성모님께 특별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및 성체거동
 대상: 청년 및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가족 환영)
 회비: 1만원(봉헌초 포함)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 교육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 피정반	2023년 1월20일~2월3일 매주(금) 13시30분~16시30분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2023년 1월18일~2월1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새천년복음화학교 1단계 148기 개강

때, 곳: 2023년 3월27일(월) 14시·3월30일(목) 19시,
 가톨릭회관 5층 / 문의: 02)753-8765, 010-8931-8765

2023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2023년 2월10일(금)까지 /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수어(手語=수화) 교실 개강(2023년)

곳: 포살 배움센터(성북구 종암동)-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부설(주최) / 문의: 02)941-1880(learning4@daum.net)
 주간반 1월4일(수) 11시 저녁반 1월3일(화) 19시30분

서울대교구 북방선교회 중국어반(32차) 수강생 모집

곳: 가톨릭회관 202호 / 회비: 7만원(3개월, 교재비 별도)
 인원: 기초반 10명, 초급반 10명, 중·고급반 약간명
 접수: 12월25일~2023년 1월5일(선착순) / 010-6219-1575
 개강: 1월3일(화) 기초·초급반, 1월5일(목) 중·고급반
 (화) 기초반 10시30분~13시 초급반 14시~16시30분
 (목) 중급반 10시30분~13시 고급반 14시~16시30분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2023년 1월31일~3월7일 매주(화) 10시30분~19시40분(6주), 한국CLC 강익실
 청년들을 위한 기도훈련 2023년 1월30일~3월6일 매주(월) 10시30분~19시40분(6주), 실시간 Zoom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접수: 2023년 1월17일(화)까지 / 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례 3년 넘은 견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예수회센터 겨울 특강(2023년 1월 개강)

각6주 과정 /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영성적 접근	매주(수) 동영상 링크 발송	김정택 신부
육양,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매주(수) 동영상 링크 발송	유성모 신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매주(목) 동영상 링크 발송	전주희 수사
육화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매주(금) 동영상 링크 발송	손우배 신부

모임

개포동성당 첼로 오케스트라·콰이어 전공자 모집

대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 바순, 성악, 작곡
 접수: cafe.daum.net/caelumorch / 010-2239-9463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12월28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곤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2023년 1월7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12월30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12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12월28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성서가족 열린미사(목3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2월25일 15시
 곳: 목3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2월26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김지수 신부, 박신연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백성호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인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c.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영적 자유와 사랑을 위한 강의와 훈련	강사: 전원 신부(영성상담) 2023년 1월6일~2월24일 매주(금) 10시~13시(8주) / 회비: 25만원
전문 심리상담	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 통의 어려움(부부·가족·개인)

유관단체 알림

햇살사목센터 후원회 미사

지향: 후원자와 그 가정, 자녀, 손자녀를 위한 미사
 때, 곳: 매월 첫번째(토) 2023년 1월7일 오후 3시,
 햇살사목센터(혜화로2길20) / 문의: 02)744-0840

교육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blog.naver.com/pc2ls / 문의: 010-5313-6554(문자)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23년 1월8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시	상의 후 결정	010-5155-5505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	043)295-5940(cumiesupassio@gmail.com)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추천 도서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이사 65,17)

새해 추천 도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조앤 치티스터 지음 | 20,000원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영적 메시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16가지 순간'을 말하다

새해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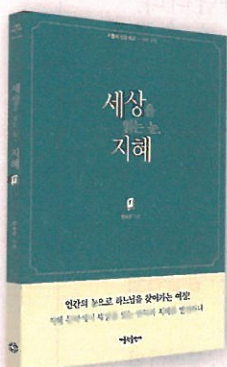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박승찬 지음 | 17,000원

최초의 현대인에게 배우는
세상 살아가는 지혜

그가 평생 고민하며 얻은 통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이해하다

새해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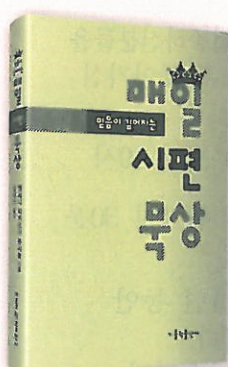
세상을 읽는 눈, 지혜

안소근 지음 | 13,000원

인간의 눈으로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

지혜 문학에서 세상을 읽는
안목과 지혜를 발견하다

새해 추천 도서



믿음이 깊어지는 매일 시편 묵상

앤서니 치카르디 몬시뇰 지음 | 13,000원

날마다 시편으로 기도를 바치는
365일 시편 묵상집

교회 전례력에 따른 시편을 묵상하며
믿음에 깊이를 더하다

2023년을 설렘으로 채우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한 줄 가톨릭

YOUCAT 재단 지음 | 16,000원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김수환 지음 | 13,000원



모든 순간이 다
꽃으로 필 거예요

이해인 지음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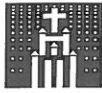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13,000원



제2260(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일시	미사 시간
성탄 미사	12/24(토)	오전 6시 (평일미사) 오후 8시 (성탄 밤 미사) -대성전, 소성전
	12/25(일)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 (주일학교통합미사) 오후 6시

※ 성탄 밤 미사 후, 지하식당에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음식나눔잔치가 있습니다.
오셔서 기뻐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 여성을드레아

일시 : 12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연령회 미사

일시 : 1월 3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성모 신심 미사 : 1월 7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1월 8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목)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8,000원	3,2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평일미사 반주자 모집

봉사시간 : 평일 06시, 10시 미사
문의 : 아녜스 대표 (010-4538-5665)

◎ 주님의 성찬에 함께 할 전례단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청년20 예그리나 단장 (010-6339-6324)
청년30 프리모 단장 (010-9526-3217)

◎ 12월 3일 견진성사 개인사건

ID : yeonhui6414@nate.com / 비밀번호 : 12ab12

* 내메일함 견진성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에서 단체사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구역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떡국떡과 만두를 판매합니다.

일시 : 12월 24일(토) 오후 3시~25일(주일)

가격 : 떡국떡 10,000원 / 1.8kg

만두(김치, 고기) 14,000원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2. 1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106	902 (42.8%)	851 (40.4%)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후
2022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이명순 데레사 상가 이십만원

고 이순복 마리아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12월 12일~18일)

원정순	오만원	기광서	삼백만원
조연수	이십만원	박병희	이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노연숙	오만원	현선자	일십만원
우성택	오십만원	김화정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이미경	일십만원
정영자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대림 제4주일)

교무금 13,607,000원

주일 헌금 6,437,550원

입당	107	봉헌	101, 109, 103	성체	102, 110, 106	파견	484
----	-----	----	---------------	----	---------------	----	-----



우 리 하 느 님 의 구 원 을 온 세 상 땅 끝 마 다 모 두 보 았 네